

오순절 후 두번째 주일

THE WORSHIP SERVICE OF 2ND SUNDAY AFTER PENTECOST

주후 2024년 6월 2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43 장 “즐겁게 안식할 날” (통일 57)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22 번 시편 37 편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643 장 “세번 아멘” (통일 555)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윤영록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신(Deut) 5:12-15, 막(Mark) 2:23-3:6	김 현 집사
특별 찬양 Special Music	“예수 나의 치료자”	임경찬 집사
설 교 Sermon	“ <b>사람을 위한 안식일</b> (The Sabbath Was Made for Man)	김일선 목사
결단의찬양 Commitment Hymn	“마음이 상한 자를”	다같이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다같이
*송 영 Doxology	317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통일 353)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파송 찬양 Closing Hymn	447 장 “이 세상 끝날까지” (통일 448)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기에,

우리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야” 하지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지 못했고,

우리의 이기심과 욕망을 좇아서 살아갈 때가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무지함과, 세상을 향한 우리의 그릇된 시선과,

우리의 지은 죄를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성령을 좇아 행하며,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엡 2:21-22)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 (막 2:27-28)

“Then He said to them, ‘The Sabbath was made for man, not man for the Sabbath. So the Son of Man is Lord even of the Sabbath.’ ” (Mark 2:27-28)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6/2 (주일)	6/3 (월)	6/4 (화)	6/5 (수)	6/6 (목)	6/7 (금)	6/8 (토)
	신7	신8	신9	신10	신11	신12	신13,14
본문	시90	시91	시92,93	시94	시95,96	시97,98	시99-101
	사35	사36	사37	사38	사39	사40	사41
	계5	계6	계7	계8	계9	계10	계11

수/요/ 찬/양/집/회 토/요/ 새/벽/기/도/회

수요 찬양집회 (6/5수 오후7:30)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히11:13-16)
토요 새벽기도회 (6/8토 오전6:30)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분향함과 같이” (시141:1-10)

지난 주일 (5/26 삼위일체주일) 말씀

“거듭나지 아니하면” (사 6:1-8, 요 3:1-8)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를 향해, 예수님께서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요3:35)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남(중생)은 우리의 영원이 걸린 가장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으며? 또한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의미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본문에서 ‘거듭나다’로 번역된 헬라어 ‘아노텐(another)’은 1)‘위로부터(from above)’ 2)‘하늘로부터(from Heaven)’ 3)‘처음부터(from the beginning)’ 4)‘완전히 새롭게 (completely new)’ 등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은 우리의 죄된 본성 (옛 사람)을 조금 개선하거나, 고쳐 쓴다는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차원이 다른 새로운 본성으로 재 창조된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엄마와 아기를 연결했던 탯줄을 끊어지면, 그 때부터 아기는 허파로 호흡을 하고, (비로소) 이 땅에서 새로운 방식의 삶을 시작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벧전1:23)고 말씀했고, 또한 사도 요한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요일4:7-8)고 말씀했습니다. 즉,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면, (진정) 우리도 사랑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거듭난 자로 참된 생명을 누리며,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설/교/ 메/모